

철원 낙농 영농조합법인



▲ 철원 낙농 영농조합법인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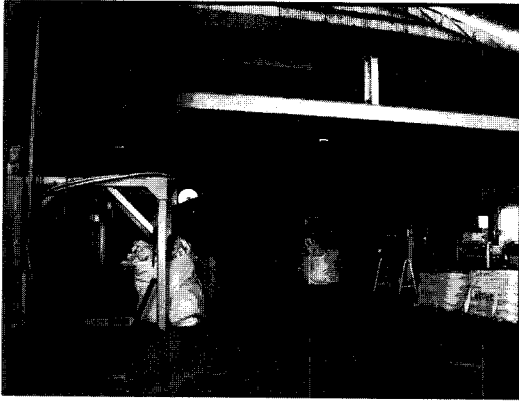
회원조합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투명 경영...



▲ 구성호 대표이사

초겨울의 찬바람을 가르며 달려간 곳은 우리나라 최전방인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철원 낙농 영농조합법인. 전방이라 그런지 추위가 매섭게 느껴지는 곳이었다. 두툼한 점퍼 차림의 구성호 회장이 반갑게 맞아준다. 기자가 이곳을 찾은 것은 예전에 철원 TMR이 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기 위한 절차로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 다녀온 이후 두 번째 찾은 것이었다. 처음 찾았을 때 보다는 훨씬 안정돼 있었고 분주해 보여서 한눈에도 사세가 많이 확장됐음을 알 수 있었다.

철원 낙농 영농조합법인이 본격적으로 TMR사업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2년 2월.



◆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 내부

‘이익 보다는 품질우선, 농가의 수익증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55명의 회원이 기존의 공장부지에 3억 여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철원군청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 건립한 것이 TMR 전문사료공장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이후 철원 TMR은 수차례에 걸쳐 공장 및 창고를 늘리고 최첨단 설비를 증설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구성호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 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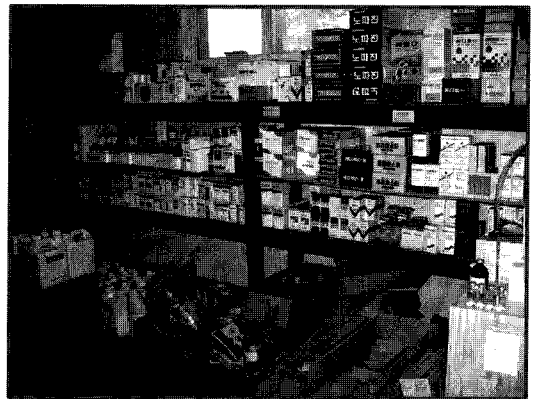
-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서는 기업의 정직이 최고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우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합원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고의 품질로 정직하게 만들어 공급하여 양축농가들의 이익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고곡가·고환율 시대에서 향후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 무엇보다 자급 조사료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일단 기후가 추워서 어렵습니다. 혹시나 생육이 가능하다고 해도 기러기 떼나 청둥오리 때문에 농사 훼손이 심각합니다. 기후 등 모든 조건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최대한 조사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양축농가를 관리하는 영업의 기술적 노하우는?

- 컨설팅 그룹마루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그룹마루의 지정수의사들이 수시로 농가를 방문하여 발정 및 수태를 도와줍니다. 또한 연령별 급이 등을 전담하고 배합비 관리를 해줍니다.



◆ 동물약품 판매장

□ 품질관리에 대한 특별한 원칙이나 제도는?

-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원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더라도 신선하고 질



◆ 출고를 앞두고 있는 완제품들...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야 가축에게도 충분한 영양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성분검사 외에도 수시로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애사심이나 사원간의 친목 및 단합을 위한 행사는?

- 회원과 임직원이 참석하는 전이용대회를 매년 1회씩 실시하여 친목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등산대회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단합을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원 및 회원 자녀들에게 매년 1회씩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사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경영이념 및 슬로건은?

- 화합조성, 복지증진, 선진낙농을 위한 교육확충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이익보다는 품질우선, 농가의 수익증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타사에 비해 양축농가에 차별화된 서비스는?

- 소 발굽 치료에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회원농가의 직계 가족들을 연 1회씩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내에 동물약품판매장과 기자재 판매장을 설치하여 저가의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吉> 



◆ 수입 건조 저장 창고



◆ 부원료 창고